

致辭

國務總理 陳懿鍾

親愛하는 全國의 勤勞者와 事業主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參席한 產業安全保健 關係者 여러분!

우리는 오늘 產業災害가 없는 活氣에 찬 產業社會를 이루하기 為하여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決意를 굳게 다지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本人은 먼저 밤낮없이 구슬땀을 흘리며 生產과 建設에 情熱을 쏟고 있는 勤勞者와 事業主 여러분의 勞苦에 아낌없는 激勵와 致賀를 보내는 바입니다. 아울러 產業戰線에서 일하다가 뜻하지 않은 災害와 職業病으로 말미암아 肉體的・精神的 苦痛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慰勞의 말씀을 드리면서 早速한 快癒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賦存資源과 蕪積資本의 不足 등, 成長・發展의 與件이 좋지 않음에도 不拘하고 緊은 期間內에 남들이 부러워 할만큼 劃期的인 經濟成長을 이루하여 國民的 輿望인 先進祖國創造의 기틀을 着實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發展은 온 國民이 團合하여 苦痛과 試練을 참고 이겨내면서 热心히 일한 結果이며, 특히 產業役軍의 誠實과 勤勉이 그 밑거름이 되었음을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最近 成長과 더불어 產業活動의 活潑해짐에 따라 產業災害와 새로운 類型의 職業病이 날로 增加하는 趨勢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對策이 切實히 要求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產業社會에 있어서 產業災害와 疾病으로부터 우리의 貴重한 人的資源을 保護하는 일은 企業發展과 經濟成長의 前提條件인 것입니다. 產業災害로 因한 毀牲은 個人的으로나 家庭的으로 가장 큰 不幸인 同時에 企業에 있어서는 事業場의 雾靄氣를 豪鬱하게 만들어 生產意慾을 萎縮시키고 나아가 國家・社會的으로도 커다란 損失을 招來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만 보아도 十五萬餘名의 勤勞者들이 災害를 당하여 事業場을 떠나야 했고 무려 六千億원에 이르는 莫大한 經濟的 損失을 입었습니다. 이는 先進國에 比하여 매우 높은 水準의 災害發生이라고 하겠습니다.

政府는 이처럼 엄청난 損失을 가져오는 產業災害를 未然에 防止하기 為하여 그동안 事業場에 對한 指導機能을 擴大하는 한편, 災害豫防技法의 開發과 普及, 危險機械에 對한 防護措置 基準制定, 中小企業에 對한 豫防施設資金의 支援 등 幅 頗은 施策을 積極 推進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企業을 直接 키워가고 있는 事業主와 勤勞者 스스로가 共同運命體의 精神 아래 安全保健意識의 重要性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產業災害豫防과 健康管理에 앞장서야 그 實効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事業主는 恒常 勤勞者들을 내 家族과 같이 따뜻이 보살피는 精誠과 함께 事業場의 安全保健管理가 企業發展의 지름길임을 認識하여 有害 危險設備의 補完 등 作業環境을 改善하고 作業方法을 改良하며 勤勞者에 對한 安全教育을 더욱 強化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生產實績에 執着한 無理한 作業進行은 오히려 災害를 불러 일으켜 더 큰 經濟的 損失을 가져오기 쉽다는 事實을 留念해야 할 것입니다. 勤勞者는 自身의 安全과 健康은 스스로가 지킨다는 姿勢로 安全守則을 徹底히 遵守하면서 作業을 遂行하고, 나 하나의 不注意가 家族은 물론 다른 同僚를 不幸하게 만든다는 것을 恒常 念頭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產業災害의 主된 原因中의 하나가 勤勞者의 不安全한 行動에 起因하고 있다는 事實은 勤勞者에게 警覺心을 불러 일으키는 教訓이 아닐 수 없습니다.

勤勞者와 事業主 여러분!

近來에 들어 事業主와 勤勞者 여러분이 自發的으로 無災害運動을 벌여 상당한 成果를 올리고 있고 이 分野에 對한 企業의 努力이 漸次 增大되어 가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運動을 事業場에서 事業場으로 擴散시켜 全國의 모든 事業場이 產業災害로부터 完全히 解放되는 알찬 結實을 맷도록 繼續 奮發해 주실 것을 거듭 當付하는 바입니다. 本人은 오늘의 이 產業安全保健大會가 年例的인 單純한 行事에 그치지 않고 모든 事業場의 災害豫防活動을 活性化시켜 產業災害가 없는 快適한 일터를 만드는 契機가 되기를 期待합니다.

그동안 產業災害豫防에 남달리 努力한 功勞로 오늘 榮譽의 褒賞을 받은 受賞者에게 真心으로 祝賀를 드리며 여러분의 職場과 家庭, 그리고 여러분의 앞날에 無窮한 發展이 있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1984年 7月 2日